

패션비즈니스 제22권 2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2,
No. 2:61-73, May. 2018
[https://doi.org/
10.12940/jfb.2018.22.2.61](https://doi.org/10.12940/jfb.2018.22.2.61)

Corresponding author

Minji Kim
Tel : +82-33-730-0617
Fax : +82-33-730-0617
E-mail : minji309@sangji.ac.kr

권력으로 재생산된 몸과 패션디자인 표현 연구 -이미지 연상기법에 의한 시각화를 중심으로-

김민지[†]

상지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A Study on Fashion Design of Reproduced the Body by Power -Focusing on Visualization by Image Associative Action-

Minji Kim[†]

Dept. of Craft Arts, Sangji University, Korea

Keywords

image associative action,
fashion design, creativity,
power, Michael Foucault
이미지 연상기법, 패션 디자인,
창의성, 권력, 미셸 푸코

Abstract

Power is the driving force of society, and the generation of power is inevitable. as long as society is rganized hierarchically. According to Michael Foucault's discourse modern power operates as a mechanism of 'panopticon', a system that monitors the 'body' of man through discipline. Moreover. fashion as acts as a symbol of beauty that continues to co-exist with power for the purpose of exposing status and authority, and for displaying the trends within a culture. So, it is necessary to study fashion design according to the changing power structure that exists in socie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ypes of creative fashion design process by visualizing the Foucault's power discourse through the image associative action. The four types of creative fashion design that have been drawn by visualizing Foucault's power discourse are as follow: disciplinary power, imprisonment power and knowledge power. The first type of fashion design method is to emphasize the shoulder by using shoulder pads, strings, tabs, and incisions in the clothing. The second method is to expose the body by using see-through material and manipulating its composition to expose the body. Third method is to borrowing elements of underwear. Fourth method is to utilize patterns that represent power, such as weapons, bones, blood, muscles, skulls, and various human imagesin the clothing.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o utilize creative fashion design to visualize concepts of the humanities, such as philosophical discourse.

I. 서론

권력은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막스베버에 따르면 권력이란 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으로 사회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권력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H. Kim, 2014). 패션은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는 권력의 도구이자 기호로서 권력과 긴밀한 관계로 상생해오고 있다 (Park, 2013). 권력과 군중의 특성을 연구한 학자인 엘리아스 카네티는 권력에 대한 기술이 상당부분 상징성 및 상징기호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시각을 주축으로 한다 하였다(W. Kim, 2014). 권력은 시각적 상징기호로 표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패션은 몸을 재생산과 재구성하는 가운데 권력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각적 도구가 되어오고 있다. 권력의 시각적 도구로서 패션디자인은 권력과 깊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권력의 시각적 도구인 패션디자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력론에서 구하여 시각화 하기 위해 근대권력론의 철학자 미셸푸코의 권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디자인의 실행에 있어 아이디어의 발상은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제시되어야 지속적 창조가 가능하며 이에 본 논문은 '이미지 연상기법'을 활용하여 '권력론'을 시각화하는 기술과 표현을 연구하여 패션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한다. 패션디자인을 권력의 개념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마가렛 대처의 파워드레싱 분석을 위해 그녀의 생애와 패션 스타일링을 아이템, 색채와 액세서리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Lee & Kang, 2014), 국내·외의 여성 정치인 패션 분석을 통해 이미지 전략 수립을 논의한 연구(Choi, 2015) 등이 있다. 또한 리더의 패션정치의 사례분석으로 대중문화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제시한 연구(M. Kim, 2012) 등은 사회 리더들의 패션경향을 분석한 연구이며, Jung(2013)은 현대패션을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반영으로 보고 인간의 의식을 연계하여 고찰한 연구이다. 특정 정치인과 여성리더의 패션을 분석한 연구 등이 대부분으로, 근대의 권력론을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을 위해 시각화 한 유형의 연구는 미비하며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문학이라는 콘텐츠에서 상상력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디자인 창작이 가능한 이미지 연상법으로 패션디자인 구현의 표현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이너는 명확한 디자인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디자인을 실행해야 하는데, 인문학을 접목하여 체계적인 발산과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패션디자인 창작의 프로세스 가능성을 제안하였음에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연구방법은 이미지연상과 권력개념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 선행연구와 국내·외의 서적을 활용한 문헌연구 및 인터넷 기사를 활용 하였다. 이미지연상법의 프로세스는 Choi(2003)의 연구 '이미지어의 연상과 유추작용에 의한 제품디자인 전개과정 연구'의 검증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본 연구의 권력론 이미지어 연상의 틀로 적용하였다. 미셸푸코의 권력론에서 이미지어의 선택으로 디자인 프로세스가 출발하였고, 설정된 디자인 컨셉을 반영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추출하여 권력론으로 시각화 가능한 패션디자인 표현유형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패션디자인의 연구는 패션전문 서적과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패션디자인은 21세기 이후 다원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패션디자인의 연구 범위는 2000년 이후의 세계 4대 여성복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II. 이미지 연상기법에 의한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1. 이미지연상기법 및 유형

연상(association)은 17세기 영국의 경험론적 철학자들이 인식과 기억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개념이다(Jung, 2016).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사물이 떠오르는 것(Rhie & Rye, 2005), 심리적 용어로서 하나의 관념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다른 관념이 떠오르는 현상, 또는 본디 공존하였거나 상기되던 관념 사이에 유사하거나 대비되는 관념 사이에 일어나는 연합이다(An, 2014). 폭넓은 상상력과 연상능력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디자인 발상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Kim & Kim, 2010). 창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연상에 의한 사고의 연습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J. Kim, 2012). 무언가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인출의 과정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떠올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연상의 과정도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부호화되고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들이 장기기억으로 남아 연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J. Kim, 2012). '기차'로 '여행'을 떠올리는 현상과 같이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방법론 중 유추에 의한 확산적 사고법이다. 연상은 상상력에 의해 이미지가 탄생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지식, 경험 등에서 발생되고 이를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이미지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강하게 인식되기 위해 독특한 특정 연상을 강조한다(Kim & Kim, 2010). 이같이 연상은 모든 사물에서 느껴질 수 있으며, 참신한 이미지에서 비롯한 자극어에

의한 연상 작용을 이용하면 디자인 발상에서 창의성을 풍부하게 하며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연상기법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접근연상, 유사연상, 대비연상과 인과연상이 있다. 첫째는 접근연상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연관되는 관념이나 경험으로 연상하는 방법으로 관련이 깊은 것을 중심으로 연상해 나가는 방법이다(Jung, 2016). 봄을 생각하면 봄비가 떠오르고 비가 오면 필요한 우산이 떠오르는 원리에 의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유사연상이 있다. 유사연상은 색상, 형태, 기능, 감촉, 이미지 그리고 오감에 대한 반응 등 주어진 대상과 유사한 대상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준에 의해 유사점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Jung, 2016). 삼각형을 보고 유사한 형태의 산을 떠올리는 것, 가위를 보고 유사한 기능의 칼을 떠올리는 것 등이다. 사고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한 사고로부터 다른 사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한 사고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관계한다(Kim & Kim, 2011). 셋째로 대비연상은 떠오르는 자극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상반된 뜻, 형태, 기능등을 포함하는 것이다(Jung, 2016). 블랙과 화이트, 남과 여, 안과 밖 등의 대비되는 것이다. 넷째 인과연상은 원인에 대해 그 결과를 유추하고 예측하는 방법이다(Jung, 2016). 겨울은 추위와 관련된 스포츠인 스키, 스케이트가 연관되어 유추되는 것 등이 인과연상이다. 디자인 목적에 적절한 연상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의적 발상을 실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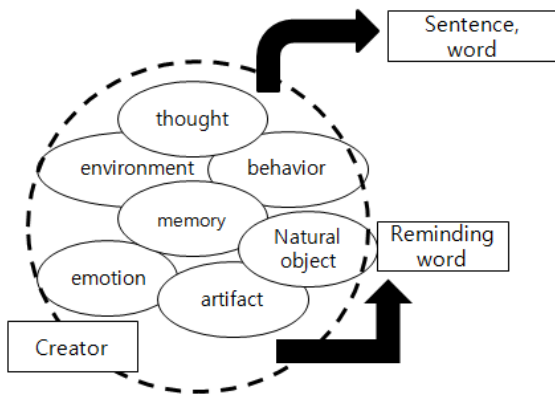


Figure 1. Extraction of Associated Word, Choi(2003), p.493

2. 이미지어 연상에 의한 디자인 프로세스

소쉬리(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하면 언어는 특정 사물 혹은 관념을 지칭하기 위한 체계와 개념의 상징적 기호라 하였다. 우리의 감각은 ‘정보의 자극→정보의 해석→정보의 처리’의 형태를 통해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자극이 언어가 될 수 있다(Kim & Kim, 2010). 언어는 시각이나 청각을 전달되어 해석되고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다. Choi(2015)는 ‘이미지어의 연상과 유추작용에 의한 제품디자인 전개과정 연구’의 연구에서 디자이너가 선정한 이미지 단어에서 이야기 구조와의 연관성을 통한 디자인 추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극어 추출에서 출발하는 이미지어 연상에 의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1단계부터 4단계에 이르며, 1단계는 이미지어의 선택이다. 디자인을 위한 타깃이나 구체적 대상을 위한 사례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임의의 이미지 선택의 단계이다. 2단계는 단어연상, 문장과 문구의 도출과정이다. 1단계의 임의의 이미지 단어나 자극어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또 다른 연상단어가 파생된다. 임의로 이미지어의 선택 후 창조자의 생각, 기억, 감정, 환경 등에 따라 연관된 단어와 문장 등이 연상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Figure 1에서 도식화하였다. 3단계는 컨셉 설정 및 형성단계이다. 디자인의 목적을 고려한 제품을 설정하여 사용자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제품 환경을 제시하여 디자인의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4단계는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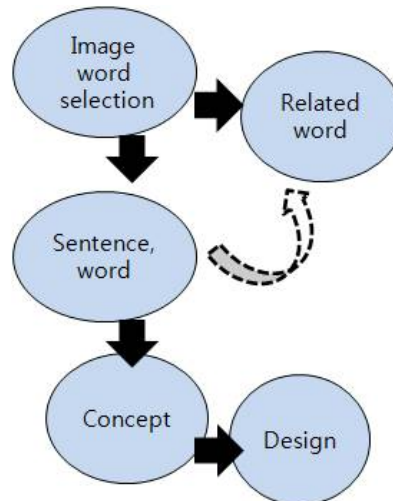


Figure 2. Design Process by Image Word, Choi(2003), p.493

Table 1. Design Process Case by Image Word 'Lantern' Associative Action

Image Word Selection	Lantern
Related Word	Fire, Warm, break darkness, sacrifice, love, stability, fellowship
Sentence / Word	Lantern is burning itself to illuminate the darkness.
Concept	Target: Preschool child Function: Word learning device is carrying the meaning of help and care and inducing learning due to portable.
Idea Processing	Examination of form and manipulation ability of preschool children. 'Help' and 'Care' are conveyed to the meaning of Form images and color images are reviewed Technical reviews that meet the above content
Design	Compact size considering portability. Considering the emotions of preschoolers - Rounded shapes, pastel colors, and product interfac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ease of operatio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applying touch screen.

Choi(2013), p. 494

과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한 독창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Figure2는 '이미지어의 연상과 유추작용에 의한 제품디자인 전개과정 연구'의 단계를 도식화한 그림으로 Choi(2015)의 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다. Table 1은 '이미지어의 연상과 유추작용에 의한 제품디자인 전개과정 연구'를 활용한 단계별 전개 사례로 Choi(2015)의 연구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미지어로 '호롱불'에서 전개되는 디자인 프로세스이다. 희생과 도움을 연상하여 미취학아동의 정서를 고려한 컴팩트 사이즈의 인터페이스 제품을 고안한 디자인 프로세스이다.

III. 이미지어 근대 권력론으로서의 패션디자인 유형과 조형성

1. 미셸푸코의 권력론

1) 권력과 몸의 재생산

권력이란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무정형적인 힘으로 사회, 국가, 국제관계를 망라해 어디에나 편재해 있다. 권력은 행사하는 주체와 권력행사의 대상이 영향을 받는 피동적 객체의 이분법의 양상으로, 보이지 않는 강제성의 영향력이 인간관계를 전제로 발생한다. 권력의 특징을 개관한 룩스(Steven Michael Lukes, 1941)는 권력에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포함되며, 인간들의 필요와

선호를 조작하여 그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Yoon, 2012). 권력과 군중의 특성을 연구한 학자인 엘리야스 카네티(Elias Canetti, 1905-1994)는 권력에 대한 기술이 상당부분 상징성과 상징기호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시각을 주축으로 하다 하였다(W. Kim, 2014). 즉, 추종을 동반하는 권력은 시각적 상징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미셸푸코는 권력의 효과가 가장 일차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곳이 인간의 육체임을 강조하였으며(Na, 2008), 인간신체가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으로 미세하게 퍼져있는 권력은 지식과 연계하여 인간의 신체를 통제하는 권력행사의 장소로 제시하였다(Lee, 2003). 사회의 관습과 규율로 보이지 않는 시각적 상징기호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은 몸을 통제한다. 권력은 시각적인 기호로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운데 사회체계에 따라 기호화되는데,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몸은 재생산 되는 가운데 권력이 지속된다.

2) 미셸푸코의 권력론

미셸푸코는 1961년 '광기의 역사', 1963년의 '임상학의 탄생', 1966년의 '말과 사물', '감시와 처벌', '성의역사'로 권력의 계보학을 출간하였다(Na, 2008). 미셸푸코는 왕과 귀족의 계급에 의한 수직적 권력이 붕괴된 이후, 사회 제도, 규율, 지식 등으로 인간 역사와 문화 속에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응시'에 의한 수평권력을 철학적으로 재발견 하였다. 푸코의 권력담론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권력의

유형인 규율, 감금과 지식의 유형으로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규율(discipline) 권력

감시와 처벌에 나타난 시선과 규율의 권력공간이다(Na, 2008). 규율은 '규칙', '훈육' 등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신체에 권력을 가한다. 권력은 '규칙과 규율에 의한 훈육으로 행해지는데 공적인 공간에서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다(Na, 2008). 인간은 은밀히 작동하는 훈육적 관계의 감시망에 살고 있다. 푸코는 규율의 공간으로 순종적인 신체가 존재하는 군대, 학교, 공장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장소는 근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훈육적 규율을 통해 감시하고 관찰할 뿐 아니라 개인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규범적인 권력으로 개인을 측량, 비교, 훈련, 분류와 교화하는 권력의 메카니즘이 작동한다. 규율권력은 학습자의 몸을 생산, 관리하고 특정방식으로 몸을 훈육시키는 규율과 통제자가 신체에 권력을 가하여 사회에 적절하며 효율적 신체가 된다.

(2) 감금권력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인간의 몸을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로 제시하며 신체행위를 잘게 부수고 구제하는 여러 가지 상호 연결된 기제를 통해 순응적인 신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주목하였다(Lee, 2003). 푸코는 권력의 효과가 가장 일차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곳이 인간의 육체이며 이를 '생체 권력(biopower)'이라 불리는 신체 권력의 역사는 신체적 형벌과 시선과 규율을 통한 일상적인 생활의 부분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Na, 2008). 18세기 신체형이 소멸되고 감옥형으로 전환된다. 푸코는 제레미 벤담의 간수가 감옥의 수감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 낸 동심원의 구조 '파놉티콘'의 구조에 주목하였다. '파놉티콘'의 감시탑에서는 수감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탑의 내부를 볼 수 없어 감시와 통제 속에 있는지 체감하지 못한다. 어디서든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구조에 대해 푸코는 근대적 감옥의 감시, 통제와 응시의 권력메카니즘이 사회 전반에 미세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시선의 상호관계에 의해 권력이 발생하는데 이 때 시각의 주체는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주체가 된다.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파놉티콘 감옥과 같은 유형의 감시체제가 사회 곳곳에 작동하고 있다.

(3) 지식권력

푸코는 '병원의 탄생'에서 의사는 도덕적 권위와 규범에 의해 비대칭적 비상호적 권력관계로 환자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응시에 의한 권력행사 중 의학은 이들 신체적 감시와 규범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대상화하

고 인간재면까지 확장하는데 기여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Kim & Lee, 2002). 해부학적 임상의학으로 신체의 내부를 깊이 응시하게 되며 의사와 환자는 응시와 관찰의 권력관계가 심화된다. 의사는 도덕적 권위를 지니며 환자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인물로 환자는 이런 의사의 권위적 응시에 종속된 존재로 나타난다. 임상의학은 신체의 내부를 해부해 봄으로써 질병에 대한 더 확실한 진리를 파악하게 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푸코는 18세기 인구 증가의 통제를 위해 성(性)을 관찰과 분석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집요한 관찰과 감시를 하였다. 그 결과 성에 대한 지식과 의학적 과학적 담론을 만들기에 이른다(Yang, 2002). 이같이 지식권력의 정체성은 힘과 지식의 연계망 안에서 지식의 실천을 통해서 창조되며 병원의 해부지식과 같은 과학적 논리의 진리를 바탕으로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이미지 연상에 의한 패션디자인 발상 및 유형

미셸푸코의 권력론 분석으로 추출된 규율, 감금과 지식권력의 세 가지 개념을 Choi(2003)의 연구 '이미지어의 연상과 유추작용에 의한 제품디자인 전개과정 연구'에 기반한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권력개념에서 이미지어를 도출하여 연상되는 단어와 문구를 도출하고 디자인의 목적에 적절한 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패션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된다. 이는 곧 푸코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규율, 감금과 지식의 권력개념에서 이미지어를 추출하고 정보의 자극, 해석과 처리의 감각작용을 기반으로 이미지 연상작용 단계에 따라 패션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을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개인이 가진 역량에 따라 다양한 연상작용을 전개할 수 있는 무수한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확산적 사고법이다. 다음은 위에서 고찰한 이미지연상 프로세스에 따라 푸코의 권력론에서 이미지를 선택후 이를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로 활용한 것으로 패션디자인의 시각화를 위한 발상과 이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1) 규율권력 이미지 연상과 패션디자인

규율권력은 익명성을 띠는 감시를 통해 힘이 행사되고 규율로 통제되는 공간으로 학교와 군대가 있음을 고찰하였다. 규율권력 중 이미지어를 '군대'로 선택 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연관되는 관념이나 경험으로 연상하는 방법인 접근연상법을 적용하였다. 군대의 군인과 그들이 착용하고 소지하는 것 등을 연상하였다. '군대의 감시자인 고위군인, 고

위군이 착용하는 군복과 계급장, 고위간부가 소지하는 무기와 각종 소품, 군복의 위장문양' 등의 단어가 연상 추출되었다. '군대'의 이미지어에서 접근 연상하여 패션디자인 컨셉을 설정한다면 '군복이나 제복의 권위적 상징요소가 반영된 현대여성복'이다.

(1) 규율권력 이미지 연상에 의한 어깨강조 유형

규율권력 연상으로 나타난 패션디자인은 제복이미지로부터 연상된 것으로 남성적인 직선적 실루엣 및 다양한 어깨강조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어깨는 예로부터 인간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신체부위로 여겨졌다(Kim & Bae, 2016). 각진 어깨의 군복과 제복은 규율권력을 상징하는 의복으로서 남성적인 실루엣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남성의 각지고 넓은 어깨는 권위를 갖는 여성의 복식이 되었으며 권위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의복의 어깨를 과장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규율권력의 '군대' 이미지어의 연상으로 남성적인 실루엣과 군복의 디테일은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로 활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규율권력 상징으로 어깨를 강조하는 유형의 디자이너의 작품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디자인 특성이 도출되었다. Figure 3의 재킷은 어깨의 너비와 높이가 과장된 파워숄더 유형이다. 파워숄더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남성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밀리터리룩에서 시작된 것으로(Kim & Bae, 2016), 장식을 배제한 미니멀한 디자인에 과장된 어깨가 더욱 강조된 형태이다. 이외에도 어깨를 크게 부풀리는 것으로 어깨의 패드모양이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Figure 4는 케이프르 어깨의 시각적 주목성이 강조된 디자인이다. 케이프는 방한의 목적으로 군복에 활용되는 아이템으로 규율권력 상징 의복이다. Figure 5의 의복은 어깨디자인에 컬러블록, 이질적인 소재 등으로 어깨에 주목성을 부여하는 디자인이다. 어깨의 의복구성에 있어 이질적인 소재나 색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얻게된다. 그 외에도 어깨패드를 활용하여 어깨를 과도한 형태로 왜곡하는 방법이 있다. Figure 6은 군복의 견장장식을 활용한 드레스이다. Figure 7의 재킷은 삼각형의 패드로 구성된 파워숄더 디자인으로 어깨의 모양이 과장되고 있다. 규율권력 이미지 단어 '군대'에서 파생된 패션디자인은 군복과 같은 권력과 위엄 상징의 복식을 특징으로 남성적 각진 실루엣과 디테일을 활용하여 규율권력이미지를 반영하는 패션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다.

2) 감금권력 이미지 연상과 패션디자인

푸코는 감금권력의 대표적 공간으로 감옥을 언급하였다. 이미지어를 '감옥의 권력자'로 대비연상하여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감금권력의 대비연상은 감옥 내부의 대비되는 권력자와 반대되는 감시와 응시의 대상인 '수감자의 몸'이 이미지 단어로 추출된다. 대비연상에서 추출된 단어를 패션디자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구를 도출하면 '교도관의 응시대상인 수감자의 신체의 금기의 공간을 응시하다'를 연상하였다. 권력자가 비예측 시·공간에서 수감자의 몸을 응시하게 되는데 이를 패션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위의 연상문구를 컨셉으로 발전시킨다면 '권력으로 응시된



Figure 3.
Jacquemus,
2016 F/W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4.
Valentino,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5.
Versus Versace,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6.
Rick Owen,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7.
Rick Owen Jacket,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몸은 비정형과 비대칭의 실루엣과 슬릿, 트임 등의 구성과 소재로 은밀히 드러나다'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소재로 금기된 은밀히 인체가 드러나는 여성복'으로 하였다. 몸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복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이며(Lee, 2012), 의복은 몸에 대한 관념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금기된 성적공간을 응시하는 몸을 드러내기 위한 의복구성과 소재의 선택으로 감금권력 개념을 창의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1) 감금권력 이미지 연상에 의한 비대칭 유형

감금권력 이미지어 '감옥'을 연상하여 '권력으로 응시된 몸을 비정형과 비대칭의 의복구성'이 첫째 컨셉으로 설정되었다. 비예측 사-공간의 응시로 감시되는 신체연상의 패션디자인은 비정형의 비대칭구조로 의복의 은밀한 인체를 드러내는 유형으로 표현하게 된다. 대칭은 질서를, 비대칭은 질서로부터의 탈피로 간주되며, 대칭, 균형의 평범한 효과가 있다면 비대칭의 균형을 예측하지 않는 신선함을 주며 역동적이고 복잡, 미묘한 리듬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Choi, 2001). 최근에는 전통적 의복구성의 균형과 조화의 질서를 거부하고 비대칭의 구조를 통해 불균형과 부조화로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이 더욱 다양화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감금공간에서 발생하는 감시와 응시의 메커니즘이 추구하는 디자인 유형과 같으며 이는 곧 우리의 일상에 근대 미시권력의 작동되고 있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Figure 8은 비대칭의 원피스이다. 러플장식이 있는 다소 굵은 어깨끈과는 대조적으로 반대편은 가느다란 스트랩이 비대칭이다. 또한 바디스 중간은 오픈되어 내부공간이 비 예측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일한 의복 내에 두 가지 이상의 비대칭 요소들이 존재한다. Figure 9의 드레스는 한 쪽 허리만 오픈된 비대칭 드레스이며, 한쪽에만 드러난 몸이 비 예측으로 응시된다. Figure 10의 스커트 슬릿이 앞으로 깊게 구성된 디자인이다. 움직임과 자세에 따라 비예측 인체를 드러내는 슬릿은 응시에 의한 감시권력에서 비롯한 반전의 미적특성을 표현하는 요소이다. Figure 11과 Figure 12의 드레스는 왼쪽 어깨와 가슴을 수직방향과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수평방향의 트임으로 비대칭이다. 응시로 감시의 대상이 되는 몸을 비대칭의 면 분할, 소매와 바디스의 비대칭구성을 위한 슬릿, 트임과 커팅 등의 요소에 의해 비 예측으로 드러내는 구조는 감금권력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의 유형이 된다.

(2) 감금권력 이미지 연상에 의한 섹슈얼리티 상징 유형

감금권력의 또 다른 유형으로 금기된 섹슈얼리티의 상징공간인 가슴, 허리, 엉덩이 등을 은밀히 응시하는 패션디자인 컨셉으로 도출되었다. 감시의 대상인 피 응시자 몸의 섹슈얼리티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응시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몸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상징의 요소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이다. 섹슈얼리티의 상징화는 두 가지



Figure 8.
Proenza Schouler,
2017 F/W
Ready To Wear,
(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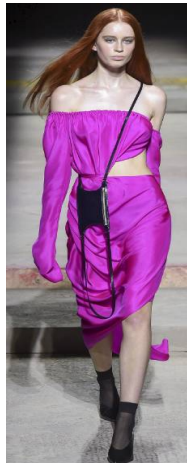


Figure 9.
Fashion East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0.
Jacquemus,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1.
Haider Ackermann,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2.
Yohji Yamamoto,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성의 속옷인 브래지어, 코르셋의 요소를 겉옷에 차용하여 섹슈얼리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3은 브래지어를 아워클라스 실루엣 블랙 원피스 위에 파란색 라인으로 드러내어 속옷을 겉옷에 드러내는데, 실체가 아닌 속옷상징 모양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 Figure 14의 빨간 투피스 겉옷으로 착용한 뷔스티에와 Figure 14의 브래지어의 구조를 차용한 베스트는 속옷을 연상하게 하는 구조의 의복이다. 또 다른 유형은 인체를 은밀히 드러내는 시스루 소재 사용으로 내부에 위치하는 여성적 상징공간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Figure 16은 검정색 시스루 소재의 원피스를 레이어드 하여 스타일링 하였는데, 내부가 드러나는 소재는 내부가 드러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각적 자극효과가 일어난다. Figure 17의 재킷은 트위드 소재와 얇은 시스루 소재를 소매와 바디의 일부에 사용하여 인체의 일부가 은밀히 드러나고 있다. 얇아 비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면 감금권력의 섹슈얼리티 상징공간을 은밀히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이다.

3) 지식권력 이미지 연상과 패션디자인

푸코는 지식권력이 행사되는 공간인 병원에서 의사가 가진 지식으로 환자에게 행해지는 권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병원’을 이미지로 선택하여 원인에 대해 그 결과를 유추하고 예측하는 인과연상 하였다. 즉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

는 ‘의사, 환자, 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체의 내부와 외부를 관찰하는 ‘해부학’, 해부로 드러나는 ‘뼈’, ‘근육’과 ‘장기’ 등이 유추되는 연상단어이다. 연상단어 중 해부와 관련된 단어와 관련하여 문장으로 도출한다면 ‘병원에서 행해지는 해부 지식의 권력과 몸’ 등이 된다. 패션디자인의 컨셉은 ‘지식권력인 인체해부의 이미지를 문양으로 활용한 여성복’으로 도출하였다. 문양은 패션디자이너에게 모티브와 형태, 색, 질감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디자이너의 감성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술적인 추구 등을 성취해주는 도구로서(Choi, 2014), 지식권력의 해부이미지는 죽음과 공포의 상징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통념화 된 관습에서 탈피하고 상상력을 담아 새로운 시대적 미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해부 이미지 중 해골문양은 이미 삶과 죽음을 상징하며 추수적이고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세기 이후 예술과 디자인에서 로맨틱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양상과 더불어 해부 이미지를 문양으로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지식권력 이미지 연상에 의한 문양의 기호화 유형

지식권력에서 도출된 디자인 컨셉은 지식권력인 인체해부 이미지를 문양으로 활용한 여성복이다. 문양은 원시시대 언어 발달 이전 의사전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즉 문양은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체계이다. 과거 인간의 질병과 죽음 상징의 인체해부 이미지가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었



Figure 13.
Jeremy Scott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4.
Proenza Schouler Bustier,
2017 F/W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5.
Undercover
2016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6.
MIU MIU
2018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7.
Sacai
2017 F/W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8.
Alexander McQueen
2009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Figure 19.
Hood by Air
2015 S/S Ready To Wear,
(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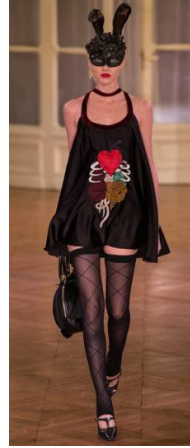


Figure 20.
Undercover
Fall 2013 Ready To Wear,
(www.google.com)



Figure 21.
Givenchy
F/W 2013 Ready To Wear,
(www.vogue.com)

다면, 지금은 다양한 미의식이 공존하는 가운데 트렌디하며 매혹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식권력을 이미지 연상하여 인체해부 이미지를 문양으로 활용한 여성복의 컨셉은 근육, 뼈와 장기 등의 해부 이미지를 문양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Figure 18의 드레스는 인체 상반신을 X-Ray 촬영한 것 같은 이미지를 프린트한 것이다. 간결한 라인과 디자인의 미니드레스가 문양으로 강렬한 디자인이다. Figure 19는 하얀색의 의복위에 각 인체가 해당되는 부분의 뼈와 근육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표현하였다. 해부 이미지가 상징적 형태로 의복에 기호화 되어있어 관람자가 해부지식에 대한 상식만 있다면 이를 연관시켜 상상하는 인식작용이 수반된다. Figure 20은 신체 내부 장기를 원색적인 컬러로 단순화 하여 프린트 하였다. 의복내부 의상에 프린트 된 인체 내부 이미지가 착용자의 실제 뼈나 장기의 위치와 유사한 부분에 위치하여 관람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의복에 문양으로 시각화하는 유형의 패션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Figure 21은 인체의 뼈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의에 프린트하였다. 디자인의 목적에 따라 인체 해부이미지를 공포, 유머, 로맨틱하거나 도식화된 미니멀한 조형특성을 갖는 문양으로 패션디자인에 활용하면 지식권력 이미지를 창의적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Table 2는 위의 세 가지 권력 개념을 이미지 연상 작용하여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로 활용한 것을 정리한 표이다. 창의적 발상이 뛰어난 사람은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 획득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Kawk & Lee,

2006).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동일한 이미지는 개인의 지식, 경험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창의적 디자인이 도출될 수 있다.

3. 권력론에 따른 패션디자인 조형적 특성

미셸푸코의 권력론 분석으로 추출된 이미지 연상작용으로 네 가지 패션디자인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미지어에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출발하였고 이에 따라 설정된 컨셉을 반영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형특성이 도출 되었다.

1) 혼성

혼성이란 패션디자인에 하위문화, 예술, 종교, 타 장르의 요소 등을 차용, 혼합의 기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원적이며 유동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데, 여성복에 남성복의 요소인 직선적 실루엣, 과장된 어깨와 군복의 디테일 등이 혼합되었다. 또한 감금공간에서 추출된 이미지어로 응시된 몸의 개념에 의해 전통적으로 금기되었던 저속한 문화인 섹슈얼리티를 부각하는 기법으로 속옷의 요소가 겉옷으로 차용되는 등, 정체성과 경계가 모호하여 복합적인 스타일의 혼합이 가능하다.

2) 상징성

상징성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

인 사물로 나타내는 성질을 의미한다(Lee, 2006). 미셸푸코의 권력론을 이미지 연상하여 상징적 요소들을 패션디자인에 반영한 것으로 상징성이 드러난다. 규율권력은 제복과 남성적인 실루엣으로, 감금권력은 응시된 몸을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요소로 상징성을 드러내었으며 지식권력의 상징적 요소는 해부학의 시각화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인문학의 개념이 의복에 도입된 패션디자인은 강한 상징적 요소가 수반되는 것으로 다원화 경향의 심화로 독창적이고 새로운 실험적 디자인에서 자신만의 디자인 독창적인 영역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3) 유희성

유희성은 유머(humor)의 감정을 유발하는데, 일상의 규칙, 논리적 일관성에서 벗어난 텍스트에서 유발된다. 해학, 풍자, 아이러니로 기대의 반전과 놀라움 등의 감정이 수반되는데, 감금권력의 이미지어에서 발전된 패션디자인 두 가지 유형에서 유희성이 발생된다. 속옷이 겉옷으로 뒤바뀌는 것은 일상의 규칙을 일탈한 유희이다. 또한 해부이미지가 의복의 문양으로 드러난 것 또한 인체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관찰자가 ‘지각하는 세계’와 ‘실제의 세계’가 불일치함에 대해 아이러니한 감정을 유발하는 유희이다.

4) 확장성

확장은 기존에 있던 공간이나 개념이 확대되어 넓어지는 것으로, 권력론의 이미지 연상하여 패션디자인으로 표현된 여성복에 남성적인 요소가 혼합된 성의 확장이다. 또한 의복의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는데, 인체와 접촉하는 속옷이 겉옷으로 위치하는 것과 인체를 구성하는 뼈와 근육 등의 요소가 의복에 문양으로 드러나는 개념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전통적인 의복의 역할, 형태, 구성의 영역 등이 확장되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실현되고 있다.

Table 2는 미셸푸코의 세 가지 권력 개념을 이미지 연상 작용한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인 혼성, 상징성, 유희성과 확장성의 연관성을 정리한 흐름도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근대권력론의 대표적인 학자 푸코의 권력론을 이미지연상으로 시각화하여 창의적 패션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셸푸코의 권력론 담론 분석으로 권력의 유형을 규율권력, 감금권력, 지식권력의 세 가지로 분석하였고, 각 권력의 유형에서 추출된 이미지어를 연상 프로세스에 적용시켜 패션디자인 컨셉을

Table 2. Flow Chart of Fashion Design Formality in Association with Power Theory Image

Power	Fashion design analysis		Formativeness
	Types	Features	
Disciplinary power	Types of shoulder emphasis	Male angular shoulders hybrid images with silhouettes and decorations for emphasis.	Hybrid
Imprisonment power	Types of non-symmetric structure	Design that reveals the body of a sexuality with non-symmetric structure.	Symbolism
	Types of symbolism of sexuality	Symbolic of a sexuality is revealed with elements underwear and see through fabric	Humor
Knowledge power	Type that symbolizes patterns	Knowledge power of human anatomy is applied as a pattern to clothing design	Expandability

추출하였다. 이를 반영하는 패션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의 디자인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첫째는 규율권력에서 연상 작용 하였는데, 어깨강조의 유형으로 현대 여성복이 제복과 군복에서 연상되어 남성적인 실루엣, 군복의 디테일과 구성으로 혼성되어 표현된다. 둘째는 감금권력의 연상 작용으로 비대칭 구조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감금권력의 응시로 감시되는 몸이 비정형과 비예측 공간에 슬릿과 트임 등으로의 복의 오픈공간을 형성하여 드러내었다. 셋째는 감금권력의 연상 작용으로 도출된 또 다른 유형으로 섹슈얼리티의 상징화이다. 전통적으로 금기된 섹슈얼리티를 상징요소를 의복에 차용하는 것으로 속옷의 요소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비치는 소재로 몸의 내부가 상징적으로 지각된다. 넷째는 지식권력의 연상 작용으로 지식권력 상징의 문양을 기호화 한 유형이다. 지식권력인 해부이미지를 문양으로 표현하여 의복에 차용하였다. 네 가지의 패션디자인 유형은 혼성, 상징성, 유희성과 상징성의 조형특성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권력론에서 이미지 연상과정으로 도출된 패션디자인은 다원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패션디자인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의 역학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패션디자인의 매카니즘을 고찰하고 이를 패션디자인에 ‘이미지 연상기법’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각화 한 연구로서 권력패션을 창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연구가 되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의와 가치를 갖는다. ‘이미지 연상기법’은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 등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연상 작용으로 디자인에 적용되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하므로, 의미연상 작용으로 도출될 수 있는 창의적 패션디자인 또한 확산적이라 하겠다. 인문학에서 창조적 패션디자인 구현을 위한 유형의 제시한 본 연구를 통해, 패션디자인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를 이종학문에서 발견하고 이를 연상 작용하여 창의적 패션디자인 발상과 구현의 가능성과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후속연구로는 권력론을 이미지 연상하여 창의적 패션디자인을 작품으로 제작하는 실증적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s

Alexander McQueen. (2009). Retrieved june 1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09/06/08/ready-to-wear-2009-ss-alexander-mcqueen/#0:31>

An, J. (2014). *Study of image streaming color education program using auditory stimulus : Characteriza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Choi, H. (2015). Utilization of fashion as the image strategy of female politician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3(4), 686-704. Retrieved from <https://doi.org/10.7741/rjcc.2015.23.4.686>

Choi, K. (2001). A study on asymmetry design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5(3), 129-143.

Choi, O.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lce & Gabana Women's collections- Focused on textile patterns-. *Korea Science & Art Forum*. 16, 489-506.

Choi, C. (2003). Study about the design process by starting image words and sentence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4(2), 489-495.

Fashion East. (2018).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16/spring-2018-fashion-east/#0:2>

Givenchy. (2013). Retrieved july 15,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3/05/20/ready-to-wear-2013-fw-givenchy/#0:30>

Hider Ackermann. (2018).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30/spring-2018-haider-ackermann/#0:24>

Hood by Air. (2013).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4/09/12/ready-to-wear-2015-ss-hood-by-air/#0:6>

Jeremy Scott. (2018). Retrieved june 1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8/02/11/ready-to-wear-2018-fw-jeremy-scott/#0:23>

Jacquemus. (2018).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25/spring-2018-jacquemus/#0:15>

Jacquemus. (2106).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6/03/02/ready-to-wear-2016-fall-jacquemus-collection/#0>

Jung, H. (2016). *A study on the design access method of the auditory the remind image and visual the remind image-focused on classical music and charac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Jung, K. S.(2013). The Aesthetic Values of Desire Embodied in Modern Fashion. *The Korea Society of*

- Fashion Design*, 13(4), 41-59.
- Kwak, B. C & Lee, S. S (2006). A study on idea generation through story association of mental images. *The Society of Design Trend*, 14., 37-50.
- Kim, M. (2012). The influence of fashion politics phenomenon expressed in leader's style on popular culture,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5), 88-105.
- Kim, J. (2012),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ssociation by similarity in conceptual ideation for product design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 Bae, S. (2016), A study on the changes of power shoulder shape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0(1), 157-172. dx.doi.org/10.12940/jfb.2016.20. 1.157
- Kim, J., & Kim, D. (2011). The effect of using numbers as visual signs in image association. *The Korean Journal of Digital Design*, 11(1), 122-129.
- Kim, H. (2014). 권력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power], Retrieved May 23, 2017. from <http://www.hankookilbo.com/v/97211ef65b994e848e21e0468e2b10c9>
- Kim, W. (2014). The Power symbols in Elias Canetti's.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38(1), 75-107.
- Kim, N. S. & Lee, K. E. (2002). History of nursing and medicine as phenomena of knowledge/pow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8(3), 373-380.
- Lee, H. (2006), *Minjung essence korean dictionary* (6th Ed.). Paju: Minjungseorim.
- Lee, M. (2012), The concepts of body by Fououcault and Merleau-Ponty in dress,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7, 97-108.
- Lee, M. (2003), Power and aesthetic images in men's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1(2), 177-192.
- Lee, M., & Kang, Y. (2014). A study on the power dressing of Margaret Thatcher: Focused on fashion styling.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1), 132-148.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12940/jfb.2014.18.1.132>
- Miu Miu. (2018). Retrieved July 15,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10/04/spring-2018-miu-miu/#0:39>
- Na, I. (2008). An analysis of the inherent power in the ballerina's body based on Foucault's theory of discourse - Focusing on the concept of power in discipline and punish-.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23, 33-58.
- Park, J. S. (2013). *패션과 권력 또 다른 지배와 복종* [Fashion and power another command and obey].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culture
- Proenza Schouler. (2017).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7/04/haute-couture-fall-2017-proenza-schouler/#0:0>
- Proenza Schouler Bustier. (2017).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7/04/haute-couture-fall-2017-proenza-schouler/#0:7>
- Rick Owen. (2018). Retrieved July 15,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30/spring-2018-nina-ricci/#0:7>
- Rick Owen Jacket. (2018). Retrieved July 15,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30/spring-2018-nina-ricci/#0:3>
- Rhie, J., & Rye, J. (2005). A study on expression method of erotic image floral art &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loral Art & Design* 14, 8-31.
- Sacai. (2017). Retrieved July 15,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3/07/fall-2017-sacai/#0:31>
- Undercover. (2016).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5/10/03/ready-to-wear-2016-ss-undercover-collection/#0:24>
- Undercover. (2013).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undercover+2013+f%2Fw#imgId=blog1528997%7C148%7C100181261991_27&vType=rollout
- Valentino. (2018),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post_id=216634&search_1=&search_2=&designer=102
- Versus Versace. (2018),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18/spring-2018-ver>

- sus-versace/#0:0
- Yoon, P. (2012). 현대권력론 [The power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ical Research Institute*. 92, 41-53.
- Yang, S. (2003). The subject and power in Foucault: A reading of Foucault's notion of the gaze. *The Criticism and Theory Society of Korea*. 8(1), 31-64.

Yohji Yamamoto. (2018).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runway.vogue.co.kr/2017/09/30/spring-2018-yohji-yamamoto/#0:0>

Received (March 8, 2018)

Revised (April 9, 2018; May 9, 2018)

Accepted (May 14, 2018)